

中企 단체 내년 ‘수장 교체’… 차기 회장 선거전 본격 점화

중기중앙회 등 7개 단체장 임기 만료
김기문 회장 퇴임 앞두고 5명 출사표
중기중앙회 내년 2월 2일 회장 선거
이노비즈·메인비즈 등 경선 가능성
연임·새 인물 경쟁 속 리더십 주목

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장들 임기가
내년에 대거 끝남에 따라 어떤 인물들이 새
로 조직을 이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는 회장 자리를 놓고 치
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어느때보다 선거전
이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
앙회(2월),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
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
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8월), 한국
여성경제인협회(12월)가 내년에 회장들
임기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들 단체는 임기가 2년(벤처협회), 3
년(이노비즈협회 등), 4년(중기중앙회)
으로 각각 다르지만 2027년 한꺼번에 물
갈이를 하는 셈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곳은 중소기업계
‘말형’인 중기중앙회다.

중기중앙회는 두 차례씩 연임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 단체
장들의 임기가 내년에 모두 끝나면서 조직을
이끌 새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여의
도에 있는 중기중앙회 전경. /김승호 기자

총 16년(23~24대, 26~27대) 동안 조직을
이끈 현 김기문 회장이 내년 2월 말까지인
임기를 끝내고 떠나게 됨에 따라 오는 12
월 11일 선거공고를 하고 제28대 회장 선
거전에 본격 돌입한다.

현재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강동
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

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민형
중부흥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
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
식·비공식적으로 출마를 밝힌 상태다.

출마가 예정된 이들 5명 가운데 강동한
·박장선·심승일·이재광 부회장은 현 김
회장 체제에서 모두 부회장을 맡으며 중
기중앙회 인팍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민형 이사장은 25대
박성택 회장(2015년2~2019년2월) 시절
부회장을 역임했다.

중기중앙회 주변에 따르면 현재 이들 후
보는 모두 완주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유
에 따라 또다른 인물들도 중기중앙회장 선
거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기탁금이 2억원
이어서 후보자 난입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
업 대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연다.

이번 리더스포럼은 차기 회장 후보자들
을 놓고 ‘세평’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앞서 중기중앙회는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과열 우려 등의 이유로 차기 회장 출마 예
정자들은 이번 제주 리더스포럼에 참석하

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1~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월3일부터 2월1일까
지 선거운동을 통해 2월2일 투표가 예정
돼 있다. 이와 함께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
비즈협회장, 성미숙 여성벤처협회장의 임
기도 내년 2월말까지다.

이들 단체 모두 1회에 한해 회장 연임
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김명진 회장
과 성미숙 회장은 연임 의지가 있는 것으
로 전해졌다. 정광천 회장은 본인 의지와
달리 주변에서 한 차례 더 연임을 희망하
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여성벤처협
회 모두 현 회장들의 의중과 별개로 차기
회장에 도전하겠다는 인물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노비즈협회의 경우 현재 수석부회장
을 맡고 있는 강선영 수원비 대표, 최종복
직스텍놀로지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두 대표가 예정대로 차기 회장에
나올 경우 이노비즈협회는 모처럼 경선을
하게 된다. 이노비즈협회의 경우 단독으
로 출마해도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벤처협회는 회장 선출때마다 반복해서
인물난을 겪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 예정된 총회 전까지 송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인물이 나타날지가 관건
이다. 벤처협회는 그동안 주로 단독 추대
를 통해 회장을 정했다.

여경협은 현 박창숙 회장의 임기가 내
년 12월까지다. 하지만 여경협은 회장 임
기 2년차 말에 수석부회장을 먼저 뽑아 기
존 회장과 1년간 동행한 후 자리를 이어받
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에 뽑는
수석부회장이 사실상 차기 회장 선거전이
되는 셈이다. 현재 여경협 주변에선 서울
권과 경기권에 있는 인사들이 자천타천으
로 수석부회장 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관
계자는 “중소기업 주변을 둘러싼 여러 환
경이 더욱 녹록지 않은 시점에서 뽑히는
단체장들이 만큼 리더십과 포용력, 업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을 두루 갖춘 인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임돼 단체
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뒷줄 왼쪽 8번째)가 매출 1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워박스

아워박스, 창업 9년 만에 매출 1000억 돌파

올해 매출 1300억 목표로 성장 가속
8년간 연평균 매출 74.2% 고속 성장
패션 물류 진출·통합 플랫폼 역량 강화

테크 기반 풀필먼트 전문기업 아워박스
가 고속 성장하며 2017년 창업 이후 처음
으로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 있다.

아워 박스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올해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간 매출은 지난해
의 877억원보다 48% 늘어난 1300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매출 1000억원 돌파는 아워박스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대규모 물류 운영
역량을 갖춘 테크 풀필먼트 기업으로 성

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다. 단
순히 물류 처리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다양한 상품과 유통 채널
에 최적화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
장 기반을 넓혀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창업 이듬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CAGR)은 무
려 74.2%에 달한다.

아워 박스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생활
용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
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별 특성에
최적화된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패션 분야로 사업 영역을
본격 확대했다. 지난 6월 가동을 시작한
에이블리 전용 풀필먼트 센터에는 패션

상품의 입고, 보관, 피킹, 출고, 반품 등
물류 전 과정에 특화된 운영 체계를 구축
했다.

아워박스의 또다른 성장 동력은 자체
개발한 통합 물류 플랫폼 ‘#MATE’다.
‘#MATE’는 주문관리시스템(OMS)과
창고관리시스템(WMS)을 통합한 플랫폼
이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발생하는 주문과 재고 현황을 통
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아워 박스는
산업별로 상이한 물류 프로세스를 일관된
시스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다.

아워 박스는 기존의 디지털 물류 운영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I·AI Transformation)에 더
욱 속도를 내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확대

내년 지원사업 5개 분야 참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문화관광
형시장 30곳 등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잠정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
여 대상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사업 참여는 ▲문
화관광형시장(30곳 내외) ▲시장경영지원
(400곳 내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300곳 내외) ▲지역상품전시회(10곳 내
외) ▲우수시장박람회(1곳)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
장·생활소비형시장 등)은 지역상권 육성사

업과 연계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문화관광형시장은 기존 2년간 최대 10
억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지원 기
간 및 규모가 커진다. 중기부는 사업 종료
후에도 상인회가 콘텐츠 제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는 예산을
기존 132억원에서 정부 예산안 기준 562
억원으로 증액해 재난 대응 범위를 확장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GLC 국내 공개

세단·SUV 앞세워 전동화 시장 공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세대 전
기차 아키텍처를 적용한 신형 CLA와 GL
C를 국내에 출시하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
장 공략을 강화한다.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을 높이는 동시
에 인공지능(AI) 기반 인포테인먼트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앞세워 국내 전
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
략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9일 성수
동에 위치한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경험
공간인 ‘메르세데스-벤츠 스튜디오 서
울’에서 ‘디 올-뉴 일렉트릭 메르세데스-
벤츠 CLA’와 ‘디 올-뉴 일렉트릭 메르세
데스-벤츠 GLC’를 공개했다.

두 모델은 각각 벤츠의 차세대 차량 아
키텍처를 처음 적용한 전기차로,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아우르는
전동화 라인업 확대의 핵심 모델이다.

벤츠 코리아의 신형 전동화 세단 CLA

는 모듈형 아키텍처 MMA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국내에는 85kWh 니켈·코발
트·망간(NCM) 배터리를 탑재한 CLA
250+ 일렉트릭과 58kWh 리튬인산철(LF
P) 배터리를 적용한 CLA 200 일렉트릭을
선보인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국내 인
증 기준 각각 474km와 342km다. 800V
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약 22분, 20분 만에 충
전할 수 있다.

전동화 SUV GLC는 벤츠의 중형 전기
차 전용 아키텍처 MB.EA를 처음 적용한
모델이다. 국내에는 85kWh NCM 배터리를
탑재한 GLC 300 4MATIC 일렉트릭을
출시한다.

특히 벤츠 코리아는 고객 편의성을 강
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대폭 강화했
다. 자체 개발 운영체제 MB.OS와 4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차
량 기능을 통합 제어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신일전자, 겨울 앞두고 생활가전 나눔 실천

평택 행복나눔 바자회에 제품 후원

국내 종합가전기업 신일전자가 겨울철
을 앞두고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동절기
생활가전을 후원하며 나눔 활동에 동참했
다. 신일전자는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동
방평택복지타운에서 열린 ‘2026 행복나눔
바자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생활가전 제
품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방평택복지타운은 사회복지법인 동
방사회복지회가 평택시 소사동에 설립한
종합복지타운으로, 특수학교와 영유아보
육시설, 장애인동생활시설,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등을 갖추고 40년 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행복나눔 바자회’는 동방평택복지
타운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2년마다
열리고 있는 평택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바
자회다.

신일전자는 이번 바자회에 전기요·히
터·가습기 등 동절기 가전 5개 품목 약 60
대, 총 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후원했다.
계절가전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가전을 선
보이는 기업으로서 제품 나눔을 통해 지
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복지시설 지원에
힘을 보탤다.

/차현정 기자 hyeon@